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요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루카 6.20, 24)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 ▶ 2/16(일) 연중 제 6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 ▶ 2/18(화) 주임 신부님 휴가기간에는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 2/23(일) 연중 제 7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환영합니다

본당 신부님 휴가로 미국 아리조나 피닉스에 위치한 성 김효임 골룸바
한인 성당 정철용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오늘 미사를 집전해 주셨습니다.

◎3/5(수) 재의 수요일 안내

- 성지 가지 회수: 집에 보관하고 계신 성지 가지 회수합니다.
- 복도 테이블에 있는 바구니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 3/5(수) 19:30 미사가 있습니다.

◎사순시기동안 십자가의 길 안내(매주 금요일 19:30)

- 3/7 사목회
- 3/14 해설, 독서단
- 3/21 울뜨레야
- 3/28 꾸리아/바뇌기도회
- 4/4 성모회/성가대
- 4/11 주일학교 자모회/복사단/자모회
- 4/18 구역장

※ 해설(1), 십자가(1), 초 복사(2) 각 단체별 봉사자 4 명과 십자가의 길
내용을 전례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단체 및 각 구역 장점 소개

완성된 비디오 화일은 전례분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약 1분 ~ 5분.
내용은 제단체 및 구역 장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총무 김성수 베드로 형제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과 신심단체, 성모회, 성가대, 성물방, 전례부, 주일학교,
복사단, 전례 해설단, 사목회)

단체 소식

◎울뜨레야 쇄신피정

- 기간: 2025년 2/ 28 (금) 오후 5시 – 3/ 2 (일) 오후 3시
 - St. Francis Centre, 208501 Highway 9, Caledon
 - 피정 주제: 동반자
 - 참가비: \$300
 - 준비물: 길잡이, 매일미사책, 목주, 세면도구, 실내화, 방한화 및 외투 장갑
 - 마감 및 문의 접수: 2/16(일) 간사 박혜영 수산나
- ※ 신청서는 게시판에 있습니다

공소 소식

- ◎ 이번 주부터 성모회에서 공소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식사비를 일인당 \$5(7 세 이상) 받습니다.
- ◎ 김대하 사도요한 신부님 휴가 기간(2/10 ~ 2/28) 중
미사집전 신부님 안내
2/16(일) - 정철용 안드레아 신부님
2/23(일) - 김찬미 가비노 신부님

구역모임 (소식)

- 5 구역 2/16(일) 13:30 친교실
6 구역 2/23(일) 14:00 친교실

친교식사

- 2/16: 7 구역(미역국, \$5/\$3)
2/23: 6 구역 3/2: 5 구역 3/9:1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11 명)			
주일헌금	\$1030	교무금	\$4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20
※ 교구특별헌금 - 신학생 양성을 위한 헌금 \$365			

◎2 월 축일자 명단(7 명)

- 2/ 4 요안나(임성신)
- 2/ 5 아가다(주소연, 이금자)
- 2/10 스콜라스티카(강영희)
- 2/16 아가폐(오예선)
- 2/18 요한 프라 안젤리코(정이안)
- 2/26 이사벨라(이지민)

2025 희년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희년 (禧年, year of jubilee)

신자들 회개해 구원·해방되고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정한 해. 전대사로 별 면할 수 있게 도와

-신자들이 하느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해. 같은 말 성년(聖年)

구약의 희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7 번 지낸 49년의 다음해. 즉 50년이 되는 해에 지난
축제다. 희년은 빛을 진 사람들이 모든 빛을 탕감 받고,
노예들이 해방돼 자유를 얻는 해였다. 구약의 희년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정신을 상기시켰다

오늘날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다.
예수는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에 관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했다. 구약의 희년이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정신을 물질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했다면, 오늘날의 희년은 영성적 차원에서
이를 실천한다. 희년 동안은 전대사가 선포돼 신자들은
교황이 정한 조건과 순례 등을 통해 고해성사에
참여하고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가톨릭 신문)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2/16	박규혜 카타리나	이준우 바오로,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이인선 젬마 임연신 비아
2/23	이인선 젬마	최두원 스테파노, 박수은 헬레나	1 독서: 신낙홍 마리아 2 독서: 권희진 요안나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행복은 상대적이지 않다.”

원정학 바오로 신부
주례성당 주임

우리는 보통 그가 잘사는 것을 보고, 건강하고 잘 먹는 것을 보고, 웃는 것을 보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로 그가 형편이 어렵고, 잘 챙겨 먹는 것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사실 여러 물질적·물리적 제약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난 행복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깝고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자녀들에게 가난을 주지 않으려 좋은 것을 배불리 먹이고, 능력 있는 아이로 키워 사회에 나가서도 넉넉한 삶을 살도록 교육에 특별히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가난이 싫습니다. 가난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고통받기보다는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이 더 낫고, 가난 속에서 행복은 찾을 수 없다고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너희가 ‘행복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날에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고, 배부르며, 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복음서 곳곳에서 드러나는 반전의 이야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하느님 나라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지는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마태 25,31-46 참조), 부자와 굶주린 나자로의 이야기(루카 16,19-31 참조) 등 세상에서의 삶과 지위가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반전의 이야기들은 마치 지금 가난하게 살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이들은 빚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비추어 집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가난하게, 굶주리며, 울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기준도 없고, 끝도 없는 욕망의 물질적 추구보다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며 나누고, 이웃에게 양보함으로써 자신의 배고픔마저도 기쁨으로 바꾸고,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함께 나아감으로 슬픔을 희망과 더 나은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참 행복의 길’이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창조의 목적이며 상대적이지 않고, 사라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영원성을 지닌다고 봅니다. 부유함과 배부름, 웃음은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며,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는 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위험이니까요!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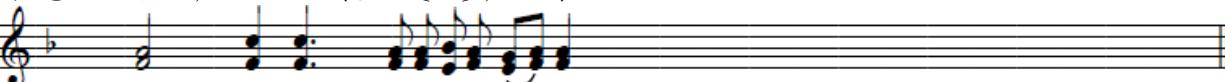


연중 제 6 주일

(2025. 2. 16.)

제 1 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17,5-8

화답송 시편 1,1-2.3.4 와 6(◎ 40 [39], 5 그느)



후렴.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훌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멀망에 이르리라.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5,12.16-20

복음 환호송 루카 6,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7.20-26